

삿포로 눈축제 - 눈축제란

삿포로 눈축제는 매년 2월, 일주일에 걸쳐 개최되는 눈과 얼음의 제전입니다. 일본열도 최북단 홋카이도의 최대 도시인 삿포로와 그 근교의 총 3곳에서 이벤트가 열립니다. 삿포로는 세계적으로도 강설량이 많은 도시입니다. 매년 강설량은 평균 485cm이고, 적설량은 80~90cm에 달합니다.

3곳의 행사장에는 각각 다른 특색과 볼거리가 있습니다. 최초의 행사장인 오도리 공원 행사장은 삿포로 중심부에 위치합니다. 이곳에서는 12블록 이상에 걸쳐 크고 작은 다양한 눈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오도리와 가까운 변화가 스스키노 행사장에서는 얼음 조각상과 야간 일루미네이션이 볼거리이며, 얼음 조각 콩쿠르 등도 열립니다.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쓰도무 행사장은 거대한 얼음 미끄럼틀과 스노래프팅 등, 옥내·옥외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

눈축제의 주역은 매년 다른 테마로 제작되는 거대 눈 조각상이며, 유명 건축물을 실물 크기로 재현하는 등 다양한 눈 조각상을 볼 수 있습니다. 제작에 앞서 비계발판을 설치하거나 트럭 단위로 눈을 운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한 삿포로 시민과 국제 팀이 제작한 중규모의 눈 조각상과 수작업으로 제작한 작은 눈 조각상도 있습니다. 눈 조각상 제작 그룹이 만들고 발전시켜 온 문화와 유대감을 느끼며, 기술을 활용해 연출된 관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눈축제만의 특징입니다.

삿포로 있는 한 학교의 선생님이 눈을 적이나 골칫거리가 아니라 친구로 맞이하면 기쁨과 기회를 가져다준다는 사고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. 삿포로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을 수용함으로써 당초 몇 개의 눈 조각상과 눈싸움에서 시작된 이 눈축제를 매년 몇 백만 명이나 방문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벤트로 바꿔 간 것입니다.